

 금융위원회	<h1>보도자료</h1>			 금융감독원
	<b>보도</b>	<b>2019.9.5.(목) 10:00</b>	배포	
<b>책임자</b>	금융위원회 금융데이터정책과장 박주영(02-2100-2620)	<b>담당자</b>	김영민 사무관 (02-2100-2625)	
	금융감독원 신용정보평가실장 권민수(02-3145-7850)		김재호 팀장 (02-3145-7830)	

## 제 목 : 2020년에는 신용등급이 신용점수로 바뀝니다.

- 신용등급 점수제 전환 전담팀(T/F) 회의(kick-off) 개최

- **2020년 신용점수제로의 원활한 전환(신용등급→신용점수)을 위한 ‘개인신용등급 점수제 전환 전담팀’을 출범(‘19.9.5)**
  - **신용점수제 도입시 점수를 활용한 보다 유연한 여신심사가 가능하여 과거 신용등급 활용에 따른 문턱효과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**

### 1 추진 경과

□ 정부는 신용등급제(1~10등급) 적용에 따른 문턱 효과\* 해소를 위해 신용등급 대신 신용점수(1~1,000점) 활용을 추진해 왔음

\* 예) 신용점수가 신용등급 구간내 상위에 있는 경우(예: 7등급 상위)는 상위 등급(예: 6등급 하위)과 신용도가 유사함에도 대출심사시 불이익

※ 개인신용평가체계 개선방안(‘18.1월)에서 개인신용등급 점수제 전환 발표

□ 다만, 현재 신용등급이 널리 활용되는 점을 감안하여 금융소비자 불편과 시장혼란 최소화를 위해 단계적으로 점수제로 전환중

① 자체 신용위험평가 역량이 높은 5개 시중은행(국민·신한·우리·하나·농협)에 우선적으로 신용점수제 시범 적용(‘19.1.14.~)

\* 시범시행 중에는 고객 상담·설명 등을 위해 신용등급과 신용점수를 병행 활용

※ 점수제 도입에 따른 효과(차별화된 여신전략 운용 등)는 점수제 도입 이후 점수별 대출 사례 부실률 분석 등이 필요하여 아직은 미흡한 상황

② 보험, 금투, 여전 등 쏠 금융권으로 확대 적용 예정(‘20년 중~)

※ [참고] 신용점수제 시행의 의미

- (현재) 다수 금융회사는 신용정보회사(Credit Bureau, 이하 'CB사') 신용등급을 여신전략에 활용
  - ⇒ 자체 신용위험 관리역량이 낮고, 국민들은 CB사 신용등급에 따라 금융회사간 차이없이 획일적 금융서비스를 제공받게됨
- (개선) CB사는 신용점수만 제공하고, 금융회사는 이를 토대로 리스크 전략 등을 감안하여 자체적인 신용위험평가를 실시
  - ⇒ 금융권 신용위험 관리역량 제고, 금융회사별 리스크 전략, 금융소비자 특성에 따라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(문턱 효과 완화)

## 2 전담팀 구성·운영

- '20년으로 예정된 신용점수제 쉰 금융권 확대 적용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'신용등급 점수제 전환 전담팀'을 구성하고
  - 전담팀의 운영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kick-off회의 개최(19.9.5.)

※ 「개인신용등급 점수제 전환 전담팀(T/F)」 kick-off 회의 개요

- 일시 : 9.5일(목) 10:00~11:00 / 은행회관 중회의실
- 참석기관 : 금융위, 금감원, 금융협회, 유관기관, CB사 등

- 전담팀에서는 관련 제도 정비, 금융소비자 불편 완화, 신용점수 활용 기준 구체화 등 점수제 전환 세부방안을 논의·마련할 예정
  - (관련 제도 정비) 신용등급을 기준으로 마련된 금융관련 법령, 서민금융상품, 공공기관 업무규정 등 개정 방안 마련
  - (금융소비자 불편 완화) 점수제 전환에 따른 대출 승인여부 등 예측가능성 저해, 대출 거절시 금융회사의 설명상 어려움 등 보완
  - (신용점수 활용기준 구체화) 금융회사 자체 신용평가모형(CSS: Credit Scoring System) 변경 등에 신용점수 활용 기준을 구체화

### 3 신용점수제 전환 효과

- 신용점수제 도입시 현재 CB사 신용등급을 활용중인 여신승인 및 기한연장 심사, 금리결정 등의 유연화·세분화 가능
  - (여신승인 및 기한연장 심사) 신용등급이 일정 이하인 경우 대출 거절, 대출 기한연장시 소득정보 추가확인
    - 신용점수에 따른 유연한 여신 승인 및 기한연장 기준 적용
  - (금리결정) 신용등급이 일정 이상인 경우 금리 할인 적용
    - 신용점수에 따라 금리할인 수준을 보다 세분화하여 운영

✓ 기대효과(예시)

- 신용평점이 664점인 A씨는 7등급(600-664점)에 해당하여 대부분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거절 받을 가능성이 높지만, 점수제에서는 6등급과 유사하게 취급받아 제도권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됨
- 등급제하에서 평가상 불이익을 받는 금융소비자(약 240만명 추정)는 대략 연 1%p 수준의 금리절감 혜택 기대 (금융研, '18년)

### 4 향후 계획

- 추진 일정에 맞춰 '20년 중 점수제 전환을 차질없이 완료

< 추진 일정 >

	금융회사 등	금융위·금감원 등
~'20.上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내부 신용평가시스템(CSS) 마련 (소형 금융회사의 경우)</li> <li>• 내부 신용평가시스템(CSS) 정비</li> <li>• 고객 응대 매뉴얼 개발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신용등급을 기준으로 마련된 금융관련 법령 등 정비</li> <li>• 신용등급을 사용하는 서민금융 상품 기준, 공공기관 업무 규정 등 개정</li> </ul>
'20.下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신용점수만으로 여신 등 운영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진행상황 점검</li> </ul>
'20.下~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점수제 전환 결과 모니터링 및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추가 개선 필요사항 점검</li> </ul>

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	 출처표시	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. <a href="http://www.fsc.go.kr">http://www.fsc.go.kr</a>	<b>금융위원회 대 변 인</b> <a href="mailto:prfsc@korea.kr">prfsc@korea.kr</a>	 넓게 들었습니다  바르게 알려겠습니다
--	---	---	--	--

**“혁신금융,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”**